

고대 동아시아 관문 호남, ‘국제교류 플랫폼’ 고민할 때다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6>

제2부-선사와 고고

② 동아시아 옥문화를 통해 본 호남

정진재 전남과학대학교 교수

여수 남면 안도리에서 발견된 6000년 전의 옥 결(옥으로 만들어 허리에 차는 고리)은 어디에서 왔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하 지역의 흥릉와(興隆嶺) 문화(약8000년 전)로부터 시작돼 서해안을 따라 남하했을까? 아니면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했던 양자강 유역의 하모도(河姆渡) 문화(7000~5000년 전)에서 왔을까?

신석기 시대 중국 요녕성 흥릉와 문화(약 8000년 전), 길림성 백성(약 7000년 전)과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약 8000년 전), 여수 안도리(약 6000년 전), 일본열도 후쿠이(福井)현(약 6000년 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귀걸이 장식용으로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런 요하 지역의 옥 문화는 선사시대와 역사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요하지역의 흥산문화를 비롯한 신석기 시대 옥문화는 황하문명보다 연대적으로 대략 5000년에서 1000년 이상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옥기 유물과 더불어 독자적인 성격의 당시 인류 최고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내몽고 적봉시 우하량에서 흥산문화(약 5000년 전)의 옥룡, 옥봉(玉鳳), 옥신인(玉神人) 등이 함께 발굴됨으로써 바로 이곳이 동양사회의 ‘용봉문화’의 시원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흥산문화의 옥룡은 만주와 한반도 일본열도로 건너와 곡옥(曲玉)으로 바뀌어 유행했으며, 후일 모자곡옥(딸린 굽은옥), 금모곡옥(金■曲玉) 등은 중원문화와의 성격이 서로 다른 독자적인 성격의 옥 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 호남을 중심으로 지석묘, 청동기,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옥 유물(옥결, 옥환, 관옥, 옥구슬 등 포함)은 일본 사회의 최고 권력의 상징인 삼종의 신기(곡옥, 청동검, 청동거울)와 거의 같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윤기 교수는 저서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에서 삼종의 신기에 대해, 와세다대학 사학과 미즈노 유(水野 裕)교수의 “삼신기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귀화인들의 신보였다고 본다. 옥과 거울과 같이 신보를 천황이 갖춤으로써 비로소 주권의 표상인 삼신기가 성립되었다. 일본 고대왕조는 귀화인들에 의해 성립되었다”라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삼종의 신기는 흙미롭게도 고조선 건국 과정에 등장하는 천부인(天符印)과 같이 신화적 구성 요소와 방식이 너무도 유사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천부인을 칼, 거울, 방울이라고 하지만, 인(印)의 경우, 고조선의 적통을 이어받은 부여의 ‘예왕지인’(穢王之印)을 놓고 몇 년 전 방영된 TV드라마에서 백제 근초고왕과 고구려 고국원왕이 서로 답판을 벌이던 장면이 떠오른다.

결국 백제와 고구려가 국가의 명운을 다룰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천부인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일본왕실의 삼종의 신기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서남부 즉 호남지역을 지경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의 옥결의 분포지역은 물론 벼농사, 지석묘, 옹관묘, 청동검, 청동거울 등 수없이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와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문헌 기록을 함께 들여다



중국 요하 지역 흥릉와 문화 옥결.(8000년 전)



여수 안도리 옥결.(6000년 전)

선사시대 옥문화·지석묘·청동검...
중국서 남하...호남 거쳐 일본으로

일본 문화 토대 호남 ‘국제적DNA’
한·중·일 미래 주도적 역할 해야



무안 일로 월암리 지석묘 출토 옥결.



일본 후쿠이현 옥결.(6000년전)

보더라도 한반도 서남부 호남지역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호남은 일찍부터 동북아 국제 사회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호동마을 지석묘에서 출토된 곡옥, 관옥, 옥구슬 등 옥 유물과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의 ‘마한인들은 금, 은, 비단보다 구슬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 그리고 역사적 문헌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호남을 중심으로 한 마한의 옥 문화 유물의 출토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홍군 5세기 초 야막 고분 유적에서 곡옥이 중국제 청동 거울, 대도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바로 전형적인 최고 권력의 상징물이다. 일본의 삼종의 신기보다 앞서서 삼종의 신기의 원형이 왜 고홍에서 나왔을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홍군 포두면 길두리 ‘안동고분’에서는 금동관, 금동신발, 구리거울, 환두도(環頭刀·동근 고리 칼) 등 ‘최고 권위자’를 상징하는 유물이 출토된 것이다.



고홍군 야막 고분 유적 출토 유물. 곡옥, 중국제 청동거울, 대도 등이 포함됐다.

■동북아 옥결문화권



결국 고홍 지역에서 삼종의 신기 가운데 곡옥만 빠지고 출토된 것으로, 안동고분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5세기 초 고홍 반도 일대와 섬진강 유역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섬진강·영산강권을 중심으로 5, 6세기 중엽까지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세력이 존속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열도의 전반적인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하니와라 카즈로(埴原和郎) 도쿄대 명예교수의 저서 ‘일본인의 성립’(日本人の成り立ち,人文書院,1995)에서 ‘대량의 도래인들이 건너 온 시기는 야요이 시대의 개시기(BC 3세기)로부터 초기 역사시대(사기 7세기)까지의 약 1000년 동안 ... 도래인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정에서 살펴보면 1000년 동안의 도래인 인구는 약 150만 명이 며, 7세기 초의 시기에서의 조문계(縄文系)와 도래인의 인구 비율은 1대 8.6이 된다’고 했다.

홍윤기 교수도 저서 ‘일본속의 구다라,백제’에서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불과 1만8000명 미만의 선주민(조문인)과 150만 명의 도래인들이 그 후 1300년 간에 증가해 온 것이 오늘날의 일본인 인구 1억4000만 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래인의 숫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인구의 약 80% 이상인 1억12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 수치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일본인들의 주류가 한반도나 중국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진출한 사실을 인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따라 물따라 역사의 물결따라 일본열도로 진출했다면 사람들을 따라, 이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상당한 정도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 건너가지 않았을까? 한반도 서남해안 호남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이러한 역사적 큰 물결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BC 3세기에 한반도에서 최첨단의 벼농사 기술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어느 지역이었을까? 원래 벼농사는 노동력 집약의 성격이 강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인구와 정착 생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벼농사와 관련된 선진 기술까지 갖추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문만 갖더라도 나머지 해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답은 바로 한반도 서남부 호남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과연 비이삭만 들고 갔을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아 아직 백제가 등장하기 이전인 관계로 마한 소국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등 풍부한 강들과 서남해안 지역의 ‘해상(내수면 포함) 고속도로’를 통해 우선 일본열도의 큐슈 북부 지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혼슈 최남단 아마구찌현(山口)·시모노세키(下関) ‘망향의 도래인 유적지’로 유명한 도이가하마(土井が浜, 2300~2000년전 야요이시대)유적지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차 장례를 지낸 인골들이 발견되었고, 유골들이 한반도의 호남지역과 중국대륙의 산둥반도에 있는 고향을 향해서 묻혀 있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일본사회의 독자적인 성격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약2000년 전의 일본 사회의 방향성과 상징성이 어디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건너왔는지 더욱 명백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사회가 야요이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독자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단계에서 이곳 호남지역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를 토대로 호남은 닫힌 지역사회가 아니고 서해와 남해로 열려 있는 한중일 동북아시아 국제화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호남인들에게는 이처럼 국제적 DNA가 역사적으로 유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옥 문화 발달사를 통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호남과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도쿄 히토쓰바시대학 동양사
회사 전공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역사학
박사
-전남과학대학교 동북아문화
연구소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고봉 기대승과 빙월당

김형주

고봉 기대승(奇大升)은 1527년 광산구 임곡동 소고통마을에서 성리학자 기진(奇進)의 2남으로 태어났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기운(奇運)은 그의 계부(季父)이다.

1549년 사마시(司馬試)와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고 1563년 승정원 주서, 1565년에는 이조 정랑과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1572년 성균관 대사성과 태조 이성계의 조상 계보를 밝히는 직책인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謬奏請使)를 거쳐 사간원 대사간으로 재임하다 병환으로 인해 시작하고 귀향하던 도중 정읍 인근에서 45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다.

고봉은 1558년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한양으로 가던 길에 김인후·이항 등과 만나 태극설(太極說)을 논했고,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보게 되자 퇴계 이황을 찾아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배움을 청하였다. 이후 이황과 12년간 서신을 교환했는데, 1559년부터 8년 동안에 이뤄진 사철이기론쟁(四七理氣論爭)은 조선유학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이었다.

그는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반대하고 “사단칠정이 모두 다 정(情)이다”라는 주정설(主情說)을 주장했으며,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수정해 정발리동기감설(情發理動氣感說)을 강조했다. 또한 이악기강설(理弱氣強說)을 주장해 주기설(主氣說)을 제창함으로써 이황의 주리설(主理說)에 맞섰다.

빙월당(氷月堂)은 기대승을 중심으로 하여 박상, 박순, 김장생, 김집 등 조선시대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와 문신을 배향한 월봉서원의 강당 이름이다. 월래의 강당 명칭은 충신당(忠信堂)이었는데, 18세기 말 문체반정으로 학문을 중흥한 정조 임금이 선생의 고결한 학덕을 흠모해 ‘氷心雪月’(얼음같이 맑은 마음과 눈 위에 비치는 달빛처럼 정갈한 심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빙월당’ 당호를 하사하면서 붙여줬다고 전해진다.

월봉서원은 1578년 낙암마을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됐고 동천마을로 자리를 옮겨 재건한 후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다시 없어졌다. 일제강점 말기인 1941년 현재 위치인 너브실(嶺谷)마을의 종가 터에 빙월당을 복원하고, 1981년 사당과 정관각을 준공한 이래 경내 성역화사업을 전개했다. 장성필암서원과 더불어 호남 유학정신을 일으킨 발상지로 중요한 위상을 갖는 월봉서원은 아늑한 백우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찾아와 선생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뜻을 기리고 배우는 학문의 도량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